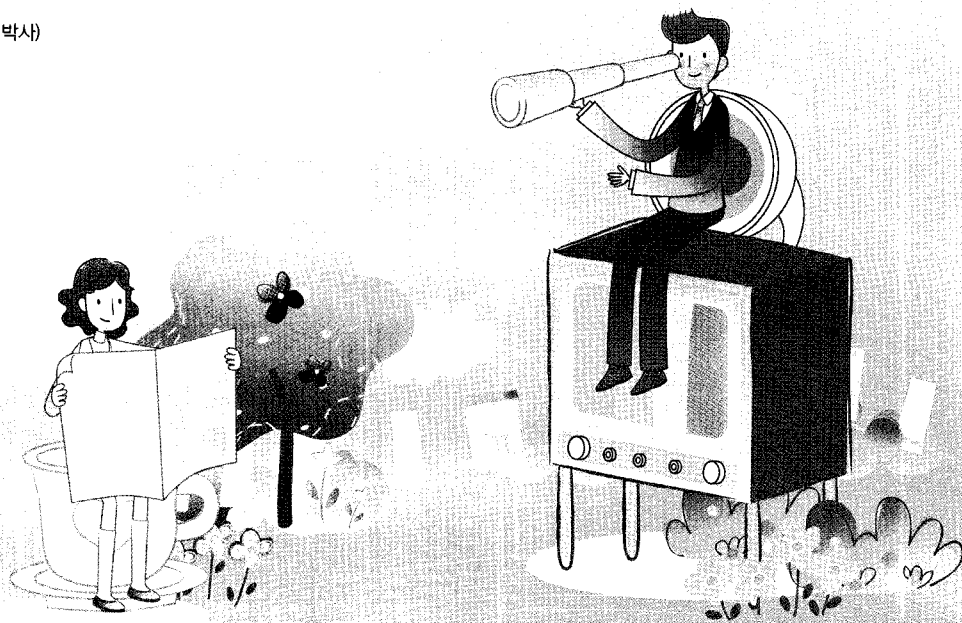


_ 실효성있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

글_ 이남철(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중소기업

대기업

최근 장안의 최대 화두는 일자리일 수밖에 없다. 급속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현실화되고 있는 일자리 위기에 대해서 정부와 기업들은 다양한 대응책 마련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의 재정 확충을 통한 직접적인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인턴제 확대 등을 수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경우 청년인턴을 5천 명으로 확대하고 정부지원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4일에는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내놓은 이 대책은 내년에 40만~50만개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와 코스닥, 제3시장을 적극 활용할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담고 있다.

대기업의 고용 능력이 크게 떨어진 만큼 벤처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창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년 고용과 성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듯 정부가 벤처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최근의 경기침체 속에서도 고용창출과 경영성과가 썩 괜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벤처기업의 매출 증가는 지난해 25.3%로 중소기업(5.4%)과 대기업(6.6%)을 능가했고, 정규직 종업원 수도 지난 2002년 평균 36.2명에서 지난해는 39.1명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벤처기업 수가 지난 2001년 1만 1,392개를 꼭지점으로 지난달 말 7,433개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자, 다시 정부가 벤처의 후견인으로 나선 셈이다.

하지만 KDI(한국개발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국내 중소벤처기업 중 절반가량이 창업한 지 2년 안에 문을 닫고, 지난 10년간 생존율이 25.3%에 그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한 중소벤처기업 일자리 창출 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 창업이 필요하다. 창업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산업구조를 선진화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창업도 어떤 창업이냐가 중요하다. 현재 상황으로는 고용의 질과 성장속도가 일반 기업에 비해 월등한 혁신형 창업이 필요하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 창업정신에 정치권과 기업,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둘째, 정부는 중소기업 및 구직자에 대해 체계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구직자들이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하는 방식은 체계적이지 못하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통한 중소기업 취업은

40.2%, 학연·지연을 통한 취업은 25.5%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은 적합한 인력 수급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맥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취업에서 탈피, 중소벤처기업에 공식적인 취업루트를 개발하고, 이를 통한 기업에 적절한 인재를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 주도의 신성장동력사업에 중기벤처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고학력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정책이 절실한데 중소기업들은 신성장동력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중기청의 '중소기업 사업전환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사업방식은 기존 업종에 신규업종을 추가하는 식이며 기존사업을 폐기하고 완전히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는 3.7%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에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켜야 한다. 기업가 정신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체계적인 교육을 초·중·고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생계형 창업의 경우 창업 후 5년간 생존율이 30% 수준으로 일반기업의 38%보다 낮기 때문에 미리 준비된 창업으로 유도해야 한다.

넷째,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 근무환경 개선 및 잘못된 선입관을 고쳐야 한다. 최근 중기벤처의 인력난은 양적으로는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으로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질적으로는 여전히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기벤처로의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중소기업 클린화 사업 등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다섯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특히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인력과 자금에서 열악한 중소 협력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선발된 인턴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턴급여 전액을 대기업이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들도 인턴들의 취업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직업관, 문제해결 능력, 경영전략 등 직무 전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